

라이프스타일공학 구현을 위한 주거공간 내 생활행위 분석연구

A Study on Analysis of Residential Living Behavior for Realizing Lifestyle-engineering

곽윤정* / Kwak, Yoon-Jung

김경연** / Kim, Kyoung-Yeon

이연숙*** / Lee, Yeun-Sook

Abstract

Recently, the paradigms of residential planing are changing by digitalization, diversity and globalization. Since the infortance of residential living behavior and lifestyle have been recognizing, house can be perceived as a lifestyle engineering product which realizes lifestyle in a concrete wa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scrutinizes lifestyles through resident's value and preference of everyday living behavior in the residential , special contact.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the small group workshop to housewives divided into three groups such as the age 30-40s, 45-55s, 60-70s group. The workshop consisted of three stages, such as the awareness of family and home, the satisfaction of residential space, the value and preference of everyday living behavior. This study shows that Lifestyle characterize by ages, differences of living pattern and individual traits. The 30-40s' housewives relate to foster of a preschool child and it makes load of household. their characteristic is the preference of rest as releasing stresses. The 44-55s' housewives have self-oriented traits. they pursue own space and interaction with others. The 60-70s' housewives require natural interaction with family more than private space and an open view.

키워드 : 라이프스타일, 라이프스타일공학, 주거생활행위

Keywords : Lifestyle, Lifestyle-engineering, Housing Living Behavio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사회는 정보화, 다원화, 세계화 현상을 띄며 다양한 생활 전반의 변화를 이끌고, 과거의 획일적인 생활 전경에서 탈피하여 각 개인의 특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생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의 생활패턴이나 라이프스타일도 세분화되며 유동적으로 변화하여 이들의 삶을 증진시켜 주기 위한 대응이 여러 국면에서 요구된다.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변화로 인해 기존 주거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주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현재의 주거환경은 지난 20세기 대량 생산형 패러다임에 의해 건설되어옴으로써 다양한 요구를 지니는 거주자를 수용하고 대응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미래의 주거발전을 위해서는 주거를 물리적인 구조체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의 유기적인 삶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거주자가 인식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무의식 가운데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과 요구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

하여 이를 주택개발에 반영하여 주택이 거주자의 삶과 보다 유연한 관계에 있게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거주자의 삶을 이루고 있는 생활행위의 총체적 개념인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하고 그것을 물리적인 실체로 창조하는 이른바 「라이프스타일 공학」이라는 관점에서 주택계획과 개발이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라이프스타일 공학을 구현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거주자들의 주택 내 일상행위에 대한 가치 선호를 통해 공간과 밀착되어있는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이다. 라이프스타일과 공학 그 각각의 용어는 오래전부터 보편적으로 사용해오던 용어이나 이연숙(2006)¹⁾이 처음으로 이들을 합성하여 새로운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공학은 영어로 「engineering」으로서 그 뜻이 웹스터사전에 의하면 「물질의 특성이 사람들에게 유용하도록 만들어내는 과학적 수학적 응용」로 되어있다. 이러한 의미를 그대로 살려 「라이프스타일 공학」을 풀어보면 라이프스타일을 어떤 실체물로 탄생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아날로그 지향적 물체와 디지털 지향적

* 정회원,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석사과정

** 정회원,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석사과정

*** 회장,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1) 학술진흥재단 문제해결형인력양성지원사업, 라이프스타일 공학으로서의 디지털 홈 계획 연구, 연구계획서 www.krf.or.kr

물체 모두를 포함하나, 그 현대의 공학적이미가 더욱 기술공학 적 의미를 지니게 된 것과 연계하면, 보다 기술공학적 특성이 두드러진 관계를 의미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특히 반영한다면 다음과 같이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정보화 사회의 주거개념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정립된 것으로서 인간의 삶을 지원하는 새로운 물리적 환경 체제와 네트워크 체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주거를 대상으로 한다. 즉, 인간 생활측면의 소프트웨어로서의 라이프스타일과 물리적 측면의 하드웨어로서의 공학이 만나는 융합과학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2. 문헌고찰

라이프스타일 개념은 1963년 레이저(Lazer)에 의해 처음 소개된 마케팅의 한 전략으로서 시장 세분화를 목적으로 소비자 들의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시작되었다.(이영주, 1998) 주로 경영학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어왔으며 주거학 분야에서 오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으나 그 수가 그리 많지 않았다. 특히 주거환경과 연관되어서는 비교적 90년대 후반부터 적극적 관계로 연구되어왔고 그 예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최근 10년간의 라이프스타일을 주거계획과 연계하여 다룬 논문 예제

연도	저자	연구주제
1997	장재호 외2	라이프스타일에 의한 공동주택 거주자의 세분화 연구
1998	이영주 외1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주거선택행태 분석
1998	이신숙	노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생활실태 분석
2004	김동욱 외1	라이프 스타일에 대응하는 테마형 디지털홈 모델링 연구
2004	이주령	거주자 중심 스마트홈에 관한 연구 - 라이프스타일과 주생활양식을 중심으로
2005	김석경 외1	맞벌이가족의주생활특성및주요요구에관한연구
2005	박수빈	디지털 홈 디자인을 위한 아파트 거주기구의 요구에 관한 연구
2006	오찬욱	디지털 홈 디자인을 위한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연구

장재호(1997)는 수도권주변 공동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주택 의식 및 행태를 조사하여 보편적 생활유지형, 긍정적 가족우선 생활형, 보수적/합리적 생활형, 합리적/자기 중심생활형의 4가지로 라이프스타일을 유형화하였다. 이영주(1998)는 라이프스타일을 측정하기 위하여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방법인 AIO차원의 문항을 바탕으로 유사성여부에 따라 4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뒤 유형별 주거선택의 행태를 분석하였다. 설문을 하되 의식과 가치관을 다룬 것은 이영주(1998), 이주령(2004), 김석경(2005)등 있었고, 실제적인 생활 행태를 다룬 것으로는 이신숙(1998), 박수빈(2005)등에 의해 이뤄졌다. 라이프스타일을 주거계획이나 디지털네트워크계획으로 연계한 연구는 김동욱(2005), 박수빈(2005), 오찬욱(2006)등이 있었다.

그러나 연구방법에서 설문지를 통한 양적 분석이 많았으며 분석에 있어서 공간에 대한 요구측면에 치우쳐 거주자의 실제적인 일상행위로부터 삶을 질적으로 분석하여 라이프스타일에 접근한 것은 미흡하였다.

3. 연구방법

3.1. 예비조사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모든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비조사에서는 연구진들에게 편의상 접근이 용이한 20대를 일차적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예비조사는 20대가 어떤 삶을 추구하고 그에 따라 어떤 환경적 특성이 나오는 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응답의 성향을 파악함으로써 이후 연구의 방향과 방법적 개선을 하고자 함이었다.

대학교 수업 현장을 방문하여 8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이상적인 생활의 국면을 형용사+명사의 언어로서 표현하고, 그에 따른 환경적 조건을 재현하여 나열하도록 했다. 즉, 연구진들이 구상하기에는 예를 들어 '즐거움 식사'라고 할 경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명이나 가구, 배치 등의 환경적 요소가 언급되리라 예상했다. 그러나 예비조사의 결과가 '시간적 여유', '막힘없는 도로', '건강한 부모님' 등 생활에 대한 언급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것으로 인해 환경과 연계할 수 없거나 못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환경과 연계하는 표현의 경우에는 '자연의 소리', '안락한 휴식', '쾌적한 온도', '안전한 밤길', '적절한 프라이버시' 등 생활환경의 국면이 열거된 것을 추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 이후 연구 방법에서는 첫째, 본 연구가 주거 공간의 컨텍스에 따른 생활 행위를 파악하는 것이기에 이와 밀접해 있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았고 둘째, 질문지를 정교하게 구조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셋째, 연구를 진행 시키는 방법에서도 많은 이유와 컨텍스를 이해하는 스토리들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인터뷰 형식으로 하되 개별 면담이 아니라 집단이 각자 답을 하고 논의해 나가며 서로의 의견을 확인하고 수정하고 동의 함으로서 그에 대한 이유를 스스로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했다. 또한 질문지는 단계적으로 향상되어 구체성 있는 것으로서 각 단계별로는 순수한 정보를 얻되 일련의 양식에 대한 교육을 시켜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하게 함으로서 교육의 효과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 소집단 워크샷을 선택하게 되었다. 소집단 워크샷 방법은 작은 규모의 집단이 공통으로 토론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개인 상호간의 의식과 요구가 상호 교류되고 개인의 범위를 넘는 공통의 요구가 표출되는 장점이 있다. 이는 워크샷이 스스로 의견이 정리된 상태에서 토론하기 위한 훈련과정이 되어 성숙한 의견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다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한 것으로 일방적이지 않으면서 상호작용적인 교육적 효과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²⁾

2)정은주·이연숙 외 3인, 소비자 소집단 워크샷을 통한 주부들의 공간요

3.2. 연구 대상 및 진행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로는 자녀를 양육하는 전업주부로 제한하였다. 주택공간에서의 거주시간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가사를 담당함으로 인해 주택공간에 대한 평가 및 요구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전업주부라고 해도 연령층에 따라 가족의 형태와 라이프스타일 및 행위특성에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여 30~40세, 45~55세, 60~70세의 세 연령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각 연령 그룹 사이에 5년의 차를 둔 것은 각 연령그룹의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본 워크샷은 2007년 4월 시간대별 세 팀으로 나누어 3시간씩 진행되었으며, 구성원은 총 9명으로 연령그룹 별 3명으로 구성되었다.

3.3. 소집단 워크샷 진행

본 워크샷의 진행을 위한 질문지는 전문가 2인에게 안면타당도를 검증받았으며, 한 명의 진행자가 질문지를 토대로 진행하고 공동 연구원 한명이 토의내용을 기록하였으며, 한명은 진행을 보조하였다.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체 진행을 녹음하고 녹취하였다. 질문지의 구성은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주택에 대한 인식	주택 내 공간	주택 내 일상행위
가족 일반사항	현 거 부 안 욕 서 아 동 실 다 복 적 실, 발 코 니 로	취 위 식 가 출 휴 소 건 강 양 교 정보 관 리
가족의 의미	관 실 위 방 실 재 실 실	침 생 사 사 입 식 평 리
주택의 의미	공간별 만족도	행위별 가치선호도
주택의 기능성	만족도에 대한 이유	가치선호도에 대한 이유

<그림 1> 질문지 내용구성 구조

본 워크샷의 진행단계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첫 단계는 소집단과 워밍업을 하는 단계로서 일상적으로 답하기도 쉽고 추상적인 개념을 레포 형성 단계로 이용하였다. 즉 가족의 일반사항을 물어보았을 뿐 아니라 가족과 주택의 의미, 또 주택에 어떠한 기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를 물어보았다.

주택 내 공간은 주로 일반적으로 주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공간 총9가지 현관, 거실, 부엌, 안방, 욕실, 서재, 아동실, 다목적실, 발코니로 분류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거주자들의 공간 사용에 대한 하루 24시간을 추적하도록 하였는데 라이프스타일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에 어떻게 시간을 분배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또한 각각의 공간에서 어떠한 생활이 일어나는지를 머릿속에 정리해보는 효과가 있었다. 각자 주택 내 소모되는 시간이 표현된 각 공간들을 보면서 이 공간에 대해 어떻게 만족하고 불만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물어보았다.

세 번째 단계는 주택 내 일상행위에 대한 대표행위 11가지 즉, 취침, 위생, 식사, 가사, 출입, 휴식, 쇼핑, 건강관리, 양육, 교류, 정보관리로 나누어서 분류하였다. 이러한 대표 행위에 대해 각각 무엇을 중시하며, 즐거운 지, 귀찮은 지 가치와 선호를 융합한 질문을 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 간략히 적고 토의하도록 하였다. 이 후 단계로 11가지 행위를 보다 세분화 시킨 33가지행위에 대해 물었다.³⁾ 이러한 행위는 Activities of Daily Living(ADL)과 A model of social performance levels in older people를 참조하여 진행된 것이다. 예를 들면 위생행위의 경우는 세면, 샤워, 목욕, 용변행위로 세분화 된다. 여기서 점점 세분화 시켜 물어간 이유는 어떤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측면 보다는 그 안에 개선을 필요로 하는 구체적 사항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이것은 공간적 컨텍스에서 일어나는 행태적인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의 국면을 엿볼 수 있고 이를 보다 더 잘 수용해 줄 수 있는 주거계획 방법을 구상 할 수 있다.

4. 조사 결과 및 분석

4.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분석

조사 대상자의 일반배경특성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

특성	30-40세			45-55세			60-70세		
	a	b	c	a	b	c	a	b	c
나이	30	34	34	46	45	45	65	70	68
동거자녀	1남1녀	2남	1남	1남1여	1남1여	1남1여	1여	-	1여
자녀나이	5, 3	5, 3	4	19, 17	18, 13	18, 16	33	-	34
주택형태	아파트	연립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연립	다가구
주택소유형태	자가	전세	전세	자가	전세	전세	자가	자가	자가

*나이: 만세

조사 대상자의 가족구성 특성으로는 만30-40세 주부의 경우 모두 미취학 자녀를, 만45-55세의 주부는 10대 자녀를 두고 있었다. 만60-70세 주부의 경우 두 명은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세대와 함께 동거하였고, 이들 중 한명은 손자들도 함께 동거하였다. 다른 한 명은 남편과 함께 부부세대로 살고 있었다. 거주하는 주택 형태는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주택 소유형태는 연령이 높은 60-70세 주부가 모두 자가 소유형태였고, 30-40세의 한 명은 법적으로는 소유자가 아니나 자가라는 의식을 지닌 부모의 주택에 동거형태로 나타났다.

4.2. 주택에 대한 인식

가족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는 “삶의 한 목적”(1-b), “하나의 울타리”(2-a), “배우자와 협력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곳”(2-b), “의무적으로 보호하고 키워야 하는 공동체”(2-c), “하나의 울타리”

구사항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6권 2호, 2004
3)Williams EI, A model to describe social performance levels in elderly people. Br J Pract; 36:422-3, 1986

리 안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3-a), “존재의 의미를 느끼며, 자녀를 양육하는 곳”(3-b)로 이야기 하였다. 주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양육에 관한 접근도 볼 수 있으나 이들을 결과적으로 종합해 보면 ‘한 울타리에서 삶을 영유하는 집단’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주택의 의미에 대해서는 “가족의 쉼터”(1-a), “쉼터, 아이들의 놀이터”(1-b), “긴장이 풀리는 곳”(1-c), “자녀를 사랑으로 키울 수 있는 공간”(3-a), “살 수 있는 공간”(3-c)으로 열거된다. 이는 긴장을 풀고 휴식을 하는 공간인 ‘쉼터’로 정리할 수 있다. 비록 작은 집단을 통해 조사된 것이지만 대부분의 주부가 공통된 의식을 갖는 것으로 보아진다.

주택에서 요구되는 기능성을 자유롭게 토의하도록 하였을 때 나타난 것으로 30-40세 주부는 “어른들끼리 친해지면 아이들의 사회성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1-b)라고 말하며 주택 내의 교류성을 중요시하였고, 45-55세의 주부는 “아파트이지만 정원이 있었으면..”(2-b)하며 자연에 의한 쾌적성을 추구하고 있었다. 60-70세 주부는 “구조에 따라 편안함이 달라 질 수 있지”(3-b)를 통해 동선과 이동에 따른 편리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주거단지에 대해서는 60-70세 주부가 “동네 분위기가 중요해”(3-a)를 언급하며 그룹이 공통적으로 주거단지의 생활수준에 따른 주변 환경을 중요시하고 있었다.

다음 단계로는 특별히 15가지의 구체적인 기능성⁴⁾을 제시하여 주택과 주거단지를 구별하여 3가지씩 선정하여 우선순위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주택 내, 주거단지에 대한 기능성 선호의 우선순위

구성원	30-40세			45-55세			60-70세							
	a	b	c	a	b	c	a	b	c					
공간	주택단지	주택단지	주택단지	주택단지	주택단지	주택단지	주택단지	주택단지	주택단지					
기능성														
편리성	1	1	2	A	1	A	3		B	1			A	2
경제성						C	C	3	2	2				
유통성			C										3	
안전성	2	A	2		B		1	1		B				B
위생성		3				B				C	1			C
건강성	3	B		1			2	A		3				
쾌적성				3	C	2		2		A			1	A
문화성	C	A			3		B	C					B	3
조형성			B										C	
품위성									A					

* 1, 2, 3 : 주택 내에 대한 기능성순위, A, B, C : 주거단지에 대한 기능성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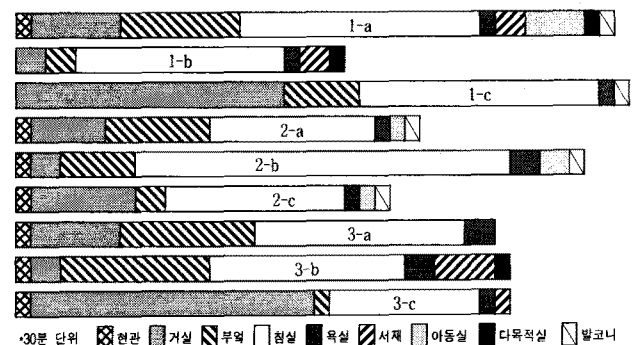
주택 내 기능성에 대한 결과로는 편리성과 안전성, 경제성이 있다. 이것을 하나씩 보면 다음과 같다. 편리성은 그룹별로 다르게 표현되어 “행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1-a), “생활하기에 쉬운”(2-a), “건강 때문에”(3-a)의 이유로 나타났다. 안전성은 30-40세 그룹에서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1-c)의 이유인 반면 45-55세 그룹에서는 “사회가 험악해서”(2-c)의 이유로 외부 방문자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였다. 또한 60-70세 그룹은 “계단 올라오기가 힘들어”(3-b)로 신체적인 건강상

태로 인한 외부환경으로의 외출과 귀가에 따른 안전성을 인식함으로 그룹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경제성은 60-70세 그룹에서만 언급된 특성으로 관리적 측면에 대한 가치를 엿볼 수 있었다.

주거단지의 기능성에 대해서는 문화성, 편리성, 안전성, 쾌적성이 있다. 전체그룹에서 많이 언급된 것으로는 문화성이다. 이는 주택 내에서의 개인과 가정만의 폐쇄적인 문화생활 보다 주거단지 내에서 커뮤니티와 실제적인 교류를 통한 문화적 생활을 지원받고자하는 요구를 드러낸다. 편리성에 대해 30-40세 주부는 “애들을 데리고 나가도 편안하게 장을 볼 수 있었으면..”(1-b)을 통해 단지의 지원성 및 편리성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와 비슷하게 안전성에 대해 “주차 공간으로부터 안전한”(1-a)것을 원하였다. 60-70세 그룹에서는 쾌적성을 언급하였는데 “조금한 터만 있으면”(3-a), “조경재배를 좋아해”(3-c)의 이유로 식물을 기르는 것에 대해 선호하고 있었다.

4.3. 주택 내 공간 만족도

주택 내 공간의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첫째, 주택의 공간 거주 시간을 묻고 둘째, 공간에 따른 만족도를 물었으며 셋째로 공간에 대한 요구를 물었다.



<그림 2> 주택 내 공간 거주시간

주택 내 거주시간을 알아본 결과 개인적인 차이가 있으나 미취학자녀를 둔 30-40세 그룹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반면 가장 적은시간을 보내는 45-55세 그룹의 a와 c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이는 자녀가 커감에 따라 양육의 상대적인 부담경감과 주부의 자유로운 시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공간별 거주시간은 30-40세 그룹의 경우 자녀들과 함께 거실 또는 부엌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었고, 자녀들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선호하면서도 부부공간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원했다. 45-55세 그룹은 주택 내 거주시간이 비교적 짧음으로 인해 거실에서 시간보다 식사를 준비하

4)편리성, 경제성, 유통성, 안전성, 위생성, 건강성, 치유성, 쾌적성, 향균성, 에너지효율성, 문화성, 조형성, 품위성, 감성, 지능성

기 위한 부엌 공간의 거주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또한 혼자만의 시간을 거실 또는 안방에서 보내고 있었다. 60-70세 그룹의 경우 안방은 취침만을 위한 공간이며 대부분 거실에서 조망을 즐기거나 음악 감상, 독서 등의 경향을 보였다.

공간만족도에 대해서 대부분 거실과 안방이 만족하는 공간으로, “편하게 쉴 수 있고”(2-c), “거실은 다양하게 누릴 수 있니까”(3-c)라고 표현했다. 특징적으로 서재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인터넷으로 인해 서재를 자유로운 공간으로 느끼기 때문(1-b)이었다. 또한 현관을 대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옴으로 인한 감정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곳으로 표현(2-a, 3-a, 3-c)하였다. 불만족한 공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다목적실을 말하였다. 그 이유는 수납공간의 부족으로 지저분한 공간에 대한 불쾌감 때문이었다.

공간에 대한 요구로 30-40세 그룹은 자녀들에게 안전한 공간으로서 특히 사고가 잦은 욕실과 부엌의 보완 및 지원성에 관한 것이었고, “모서리에 찍혀서 많이 다쳐요”(1-a)하며 안전한 설치 및 제품을 필요로 하였다. 45-55세 그룹의 특징으로는 점차 독립적이길 원하며 혼자만의 공간을 선호하였고, 아이들이 커감으로 인해 보다 다양해진 생활을 수용할 수 있기 위해 아동실이 안방보다 크게 구성되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60-70세 그룹의 특징으로는 거실공간이 넓어지고 다양한 생활을 누리길 원했지만 동시에 부엌의 식탁공간에 대한 확보를 원하였다. 공통적인 요구로는 수납공간의 필요성이었고, 부엌 및 거실에서 좌식보다는 입식을 선호하였는데 바닥에서부터 앉았다 일어나는 전통적인 생활방식에 대한 요구보다 좌식의 행태적인 불편함을 모든 세대가 느끼고 있었다.

4.4. 주택 내 일상행위 가치선호도

본 질문은 주거라는 공간적인 컨텍스에서 어떠한 경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써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행위들을 제시하고 그 중 중시되는 것, 즐거운 것 혹은 귀찮은 것을 자유롭게 고르도록 하였다.

우선 1차적으로 11가지 대표행위 즉 취침, 위생, 식사, 가사, 출입, 휴식, 쇼핑, 건강관리, 양육, 교류, 정보관리에 대한 가치선호도를 선택, 그 이유를 물은 후 2차적으로 보다 세분화된 33가지의 행위에 대한 가치선호도를 물었다. 이후 각각의 세부행위에 대한 일련의 cycle에서의 선호도 선택을 통해 그 안에 어떠한 작은 행위가 즐거움을 주는지 혹은 개선을 필요로 하는지 구체적 사항을 도출할 수 있었다.

공통적으로 나타난 측면으로는 건강성 중시로 인한 취침과 용변행위가 중시되는 행위로 드러났고, 식사행위에 대해서는 중시하면서도 즐거운 행위, 장보기도 즐거운 행위로 언급하였으나 식사처리와 청소에 대해서 반복적인 가사행위의 cycle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귀찮아하였다.

만 30-40대 주부그룹은 미취학 자녀와 함께하는 놀이와 가족과의 교제를 통한 유대감 형성에 대해 중시하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이들의 사회성 증진 측면에서 이웃과의 교류에 대한 중요도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인터넷 교체와 홈피관리, 정보수집에 대해 즐거운 행위로 언급하였다. 1-c는 인터넷가계부를 이용하여 계획적인 재정관리를 하고 있었다. 가사행위에 대해서 대부분 귀찮아했으며, 반면 휴식행위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양육행위로 인한 스트레스의 해소의 측면으로 볼 수 있다.

만 45-55세 주부그룹에서는 건강관리의 행위로서 운동에 대해 중시하는 특징을 보이며, 노후를 대비한 신체적 건강관리를 하고 있었다. 양육에 대해서는 중시하였지만 “애들이랑 생각이 달라서 충돌이 일어날 때 너무 힘들다”(2-c)고 했으며, “의견이 달라짐을 느낄 때 힘들다”(2-b)라고 하였다. 즐거운 행위로는 외부로 나가서 장보는 것을 모두 언급하였다.

만 60-70세 주부그룹에서 중시하고 있는 것은 건강 체크 행위로 나타났고 가족과의 교류행위가 있었다. 또한 휴식으로서 신문보기를 중시하였는데 이는 전통적인 방식의 사회적 접근을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이었다. 특징적인 것으로는 3그룹 모두 외출행위를 즐겁게 여기고 있었다. 이는 집객을 즐겁게 여기는

일상 행위	취침		위생		식사		가사			출입		휴식			쇼핑		건강관리		양육		교류			정보관리										
	취침	세면	샤워	목욕	용변	식사	장보기	음식준비	식사처리	세탁	청소	외출	귀가	음료간식	신문보기	조정재배	음악감상	TV시청	TV홈쇼핑	온라인	운동	건강체크	건강식품	교육	놀이	가족	집객	인터넷교제	메일관리	우편관리	홈피관리	재정관리	정보수집	
1	a																																	
	b																																	
	c																																	
2	a																																	
	b																																	
	c																																	
3	a																																	
	b																																	
	c																																	

● 중시 □ 즐거움 ■ 귀찮음

<그림 3> 주택 내 일상행위 가치선호도

것과 동일하게 여겨지며, 반면 귀가에 대해서 “계단을 올라오려면 참 힘들어”(3-b)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4.5. 그룹별 라이프스타일과 주택 계획/개발에 대한 함축적 의미 분석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그룹별 라이프스타일의 특성

	주택에 대한 의미	공간 만족도	일상행위 가치선호도
30-40세	가족의 쉼터 아이들의 놀이터 긴장이 풀리는 곳	거실과 안방 선호 서재 공간 요구 열린 공간을 통한 교류 자녀 안전성 준비	미취학 자녀와 함께하는 놀이와 가족과의 교제를 통한 유대감 형성
45-55세	내 삶의 장소	나만의 공간 선호 자녀 공간 확보	건강관리의 행위 장보기 등 외출 선호
60-70세	실 수 있는 공간	부엌과 거실 선호 조망권 확보	가족과의 교류행위 선호 식물재배 등 자연친화선호 외출에 대한 즐거움

30-40세 주부 그룹에게는 아이들의 양육에 있어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요소들이 반영된 주거계획이 되어져야 한다. 즉, 공간이 열려있어 아이들을 항상 지켜볼 수 있고 교류할 수 있어야하며, 소모적인 에너지낭비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주택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깔끔히 휴식할 수 있는 기능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45-55세 주부 그룹에서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각각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공간을 제공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서 가족간의 갈등을 해소하며 교류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는 전략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60-70세 가족 혹은 사람들의 방문하거나 교류하는데 있어서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휴식공간으로서의 주택개념을 통해 건강과 삶을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5. 결론 및 제언

주택이란 삶을 담은 그릇이라고 표현된다. 그 삶이 어떤 경향을 보이는가를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한다면 라이프스타일에 근거하여 주택의 모든 국면을 창조해내는 것이 곧 라이프스타일공학이다.

이런 관점에서 시작하여, 주택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겪는 환경적 경험 즉 무엇을 중시하고 무엇을 즐겨워하며, 싫어하는지를 좀 더 총체적으로 파악을 한다면 보다 더 나은 주택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작은 행위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 것이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요구를 지금까지 많이 행해지던 설문지의 의한 방법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소집단 워크샵이라는 것이 필요했다.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주택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 각각에 대해 느끼는 가치관과 경험이 개인에 따라 다양하였으나, 생애주기상의 특성, 즉 30-40세 주부의 경우 아이들의 건강과 에너지가

그 곳으로 쏠릴 수 밖에 없는 생활특성을 가졌고, 45-55세 주부의 경우는 청소년기의 자녀를 둔 가정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생활 특성, 60-70세 주부의 경우 자녀와 떨어져있거나 성인자녀와 함께 살기 때문에 아이들을 길러야 한다는 부담이 없는 생활특성이 각각의 라이프스타일로 유형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점진적인 행위를 파악함으로써 의해 일상행위의 가치선호도 선정이 유가 굉장히 작은 행위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들 그룹의 행태적 분석을 일반화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그들 위한 절차로서 과연 어떤 식으로 이후의 논문에서 진전을 시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가능한 균을 뽑아내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이었다. 이전의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통해 거시적 관점에서의 틀에서 라이프스타일을 접근하여 주택계획과는 동떨어져있거나 부분적으로 관계한다고 하더라도 추상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주택개발에 있어서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주거라고 하는 공간 컨텍스에서 일어나는 밀착생활행위, 즉 환경행태학적 관점에서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들여다보고자 한 것에 그 의의가 있었으며, 이러한 생활행위들을 어떻게 묶어서 라이프스타일을 얘기할 수 있을까 라는 관점에서 처음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지금 현재는 크게 3 그룹으로 나누어서 진행하였지만 추후에 일반화될 수 있을 정도의 구조가 잡힐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하고 심층적인 연구가 후속연구로서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양희,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주(거)육구에 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2006
2. 남수현, 실버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이 외식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2005
3. 이세나, 맞벌이가족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아파트 단위평면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6권 1호, 2006
4. 이연숙·신화경·홍미혜, 거주자특성별 주민공유공간 요구에 대한 연구-소집단워크샵패널방법을 이용하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8권 1호, 1997
5. 이연숙·곽윤정, 라이프스타일 공학으로서의 디지털 홈 계획 연구-연구계획서, 학술진흥재단 문제해결형인력양성지원사업, 2006
6. 이영주,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주거선택행태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4권 6호, 1998
7. 장재호, 라이프스타일에 의한 공동주택 거주자의 세분화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3권 10호, 1997
8. 정은주·이연숙 외 3인, 소비자 소집단 워크샵을 통한 주부들의 공간요구사항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6권 2호, 2004
9. 최혜숙, 일상생활 동작학, 계축문화사, 2004
10. Williams EI, A model to describe social performance levels in elderly people. Br J Pract: 36:422-3, 1986